

복지선교에 대한 성서적 이해

이 승 열 (목사, 예장총회사회봉사부 총무)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일반사회에서는 사회복지제도의 발달과 또한 각종 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의 다양한 복지시설들이 증가되어 가고 있다. 복지서비스가 좋아지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획득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이와 함께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장기노인요양보험법에 의하여 노인요양원도 늘어가고 노인요양사 자격증을 획득하여 보람있는 자원봉사자로서 혹은 직업인으로서도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섬김의 공동체이다. 사회봉사를 그 본질적인 사명적 과제요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가리켜 디아코니아(diakonia)라고 하며 교회의 사회봉사 혹은 기독교사회봉사를 일컫는 것이다. 디아코니아는 초대교회로부터 예배 혹은 예전을 뜻하는 레이투르기아(leiturgia)와 코이노니아(koinonia)와 함께 교회의 3대 본질적이며 핵심적인 사명과제였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가르침(교육)을 뜻하는 디다케(didache)와 선교(missio)가 더하여져서 5대 사명과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사회봉사는 선교와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으며 또한 코이노니아와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므로 선교적인 봉사와 봉사적인 선교가 에큐메니칼 차원에서 모든 목회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 복지선교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 혹은 복지목회라는 용어도 쓰이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와 디아코니아와 사회선교가 목회적 차원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지는 이벤트성의 일회적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아니다. 사회봉사를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립적이지 못하고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 소외계층의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사회봉사이면서도 최저생활의 수준에 초점을 두고 도와주는 일반사회의 사회복지가 아니라, 행복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자립을 도와주며, 그들의 생명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에서는 계층에 따라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다르고 수행방법이 다르다.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가족복지, 부녀자복지, 의료복지, 노동복지, 외국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질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더욱 세분화되어 오늘날은 탈북동포들인 새터민들을 위한 복지, 이주여성복지, 외국인노동자복지 등 더욱 다양한 분야의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필요하고 발전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민간사회복지단체의 한 부분을 담당하면서 여기에 기독교적인 고유한 본질적인 사명과제로서의 책임감을 가진 디아코니아와 사회선교적 접근과 이해로써 감당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입장에서나 일반 성도의 입장에서라도 복지선교에 대한 성서적 근거들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사회는 복지의 필요성이 큰 곳이다. 복지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전달체계인 시설이나 기관이 부족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회복지단체나 시설도 수요에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의 목회가 더욱 복지적 목회가 되어야 하고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아닌 복지선교적 목회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복지선교에 대한 성서적 고찰

1) 생명목회와 생명 살리기 운동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는 시작부터 생명을 살리는 구원을 위하여 일해 왔던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생물들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아버지시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여 살도록 축복 해주셨다(창1:28).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생명은 그 범위와 개념이 너무나 광범위하다. 필요에 따라서 사전적인 의미, 철학적 의미, 생물학적 의미, 사회학적 의미, 생태학적 의미들을 참고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성서적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생명은 곧 영이라는 것이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에게 임하여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명개념은 중생,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 등의 개념과 일치되기도 한다.(요 6:63, 요 11:25, 요 5:24)

또한 생명은 목숨과 살아있음과 호흡과 같은 용어이기도 하다.(눅 12:23, 마 16:26, 행 17:25) 생명은 또한 삶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딤후 6:13, 엡 1:10, 골 1:17, 20) 성서는 생명의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부는 한 몸이고, 아버지와 자녀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으며,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각 지체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며 우리는 그 가지이다. 서로 분리되는 것은 죽음을 뜻한다(창 2:23-24, 고전 12:27, 요 15:5).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운동은 복음운동이다.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여 여기며 보호하며 돌보기 위하여 몸의 문제에 대한 의료, 건강, 구호, 낙태, 자살방지, 사형 및 안락사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도 그리고 인간복제, 인공수정, 환경호르몬, 이혼, 혼전 성관계 등 생명운동의 범위는 갈수록 넓어져 가고 있다. 여기에 생명운동은 인권, 자유, 정의, 평화, 환경운동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요 10:10).

예장(통합) 총회가 2002-2012년 동안에 10년 동안 생명살리기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10가지의 과제영역은 창조질서의 보전, 평화통일, 정의와 인권, 경제문제와 나눔과 섬김, 장애인 평등, 열린 대화문화, 생명존중문화 등이다. 특별히 사랑과 섬김으로 폭력 극복과 장기기증운동 등이 주요한 역점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 아동·청소년, 부녀자 등 가족복지선교

저출산 시대에 있어서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특별히 농촌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지가 오래 되었다는 곳이 많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에 돌봐주며 양육을 돕는 복지시설이 필요하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에서는 더욱 아이양육을 위한 시설 그리고 바른 성장과정에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복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청소년 시절에 탈선하거나 비행을 저지르고 일탈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청소년 문제는 가정의 불화와 함께 가족복지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부녀자의 경우 빈곤과 가정불화 등으로 인한 폭력에 시달리고, 탈선과 매춘 그리고 직업교육과 성차별과 양성평등의 문

제, 낙태문제, 가부장문화로 인한 피해자의 쉼터 문제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쉼터 그리고 가정 폭력피해자인 부녀자들을 위한 쉼터와 상담소가 필요하다. 특히 성 윤리의 문제와 함께 증가되고 있는 혼전성관계로 인하여 생긴 십대 미혼모들을 위한 보호시설이나 싱글맘 보호를 위한 시설들이 많이 부족하다. 농촌총각들의 경우 주로 외국인여성들과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주민결혼여성들의 문화적응과 한국어능력습득과 삶을 돕기 위한 다문화가정을 돕는 복지프로그램들이 매우 중요하다.

성서에서 자녀를 낳은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인식되었으며, 그들이 아동과 청소년으로 자라고 성인이 되고 또 자손이 번창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중요한 축복의 약속이다(창 12: 2). 특히 남아의 경우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어린아이 때부터 계약백성으로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출애굽 당시에 아동을 죽이는 애굽왕의 압제에 대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은 아이들을 살렸고, 죽임을 면하게 된 어린 모세도 갈대 상자로 보호되어 죽임을 면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혼미함을 보고 애통해 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회복시키는 것임을 선포한다(애 2: 11). 또한, 시편의 기자는 자식(아동과 청소년)은 여호와와 주신 기쁨이요 그의 상급(시 127: 3)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아동들로 충만한 것이 축복과 기쁨으로 충만함을 의미한다(시 127: 3-5, 128: 3-6). 아동과 청소년은 이스라엘 민족의 한 부분이며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시 8: 3)이다.

성서에는 어린이에 관한 말씀은 많지 않지만 어린이와 연관된 예수님의 행적은 막 9-10장, 마 17-19장, 눅 9, 18장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십자가의 수난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세 번씩이나 설명을 하는 비장한 순간에도 어린이와 하나님의 나라,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복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모범을 보여주셨다.

막 9:14-29에서는 예수께서 귀신들린 아이 혹은 간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아이를 고쳐주셨다.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지고, 경련을 일으키며, 물과 불에 뛰어들고, 죽은 것과 같이 되는 오랜 고통을 겪는 아이를 고쳐주셨고 아버지와 가족 모두를 구해주셨다. 특히 막 9:33-37에서는 제자들의 싸움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면서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함이며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설명하셨다. 이는 빈곤 가정의 어린아이들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을 돕고 돌보아 할 사명과 책임이 매우 선교적이며 봉사적인 교회의 책임과 사명과 제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천국에서 큰 자라고 설명하였다(마 18:1-5). 막 10:13-16에서는 어린아이를 만져주고 안수하여 주시며 기도해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이를 막는 제자들을 꾸짖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 것과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시며 축복해주셨다. 그리고 부모의 이혼에 대한 이야기와 부자와 하나님의 나라,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버리는 방법 등을 예시함으로써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막 9 장에서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들은 교회가 중심이 되어 어린아이들을 그들의 환경의 중심에 세우고 아이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지켜주며 행복하게 자라게 해주어야 한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어 긍정적인 미래와 꿈을 갖게 해주어야 한다. 빈곤하고 정서가 안정되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면서 학대, 방임, 유기, 차별을

받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며, 회복시키며, 행복권을 지켜주고 학습권, 생존권, 문화권, 참여권을 보장받도록 도와주고, 법의 개정애 이르기까지 힘써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성의 회복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셨다. 특히 상처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인간성을 회복시키셨다. 시편 147:2-4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며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며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고 세워 가신다.

렘 12:16, 24:6-7에서는 포로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지키시고 보살피며 혈지 않고 세우고, 뽑지 않고 심으며, 여호와를 알게 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여 진심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됨을 알도록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여호와와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성실함을 닮도록 세우시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사람들을 머릿돌과 같이 귀하게 쓰시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경제의 위기상황에서 빈곤 문제로 무너지는 가정을 회복시키고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사야 65:21에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라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기본권리를 누리며, 그 집에 거하도록 빈곤가족들을 위한 통합적인 사회복지 지원과 제도적인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포도원을 재배하는 주인으로 혹은 청지기로 세움을 받아서 열매를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고기 잡는 방법과 식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쳐줌으로써 빈곤가족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롬 15:1-2에서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고 했다. 모든 종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 자립적이지 못한 계층과 모든 영역의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는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을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은 그들을 건강하게 그리고 삶의 기반을 바르게 세워주고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일이다. 복지와 봉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3) 노인복지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특히 농촌에는 노인들이 중심이 되어 살고 있으며 노인문제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이다. 노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다. 건강, 경제, 문화, 심리, 종교 등 가정의 어른으로서 중심이 되는 분들인데 존경받고 자존감이 지켜지며 어른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성서에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오래 장수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며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며,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킨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 있다(출 20:12, 욥 5:26). 노인은 일반적으로 백발의 왕관을 쓴 자나 존경과 영예의 대상으로서 존대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다(레 19:32). 이들 노인들은 오랜 생의 경험을 통해서 훌륭한 교사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며(신 22:7, 욥 12:20, 15:10), 노년에도 남을 위하여 자신의 힘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주체로서 나타나고 있다(삿 19:16-21). 또한 노인은 미래의 참다운 비전을 제시할 하나님의 일꾼(욥 2:28),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해야 할 헌신자(몬 1:9)와 사역자(민 11:24)로도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노년에 나타나는 시련과 고난의 환경과 고정의 면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존경과 명예가 보장되지 않는다. 고결함과 경건한 삶이 수반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 또한 노인은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경히 여김을 받기 쉬우며(잠 23:22), 노년기에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신체적 장애는 시력의 약화와 상실, 청각의 장애, 기운과 정력의 쇠퇴, 치아의 약화, 불면증, 두려움, 소심증 등으로 나타난다(전 12:2-7). 그러므로 노인은 약자로서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다(신 28:50).

4) 장애인복지

장애는 모든 인간의 문제이다. 장애와 무관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며 장애와 무관한 사회도 없고 장애를 배제하는 사회영역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는 사회의 지극히 작은 부분으로, 소외의 영역으로, 그리고 차별의 영역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실이다.

장애에 대하여 신구약성서는 약간 대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점이 있다. 그러나 장애에 대한 태도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성서는 “장애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위함(요 9:3)”이라고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역동적으로 사용하시는 도구가 장애임을 신구약성서 전체에서 증거하고 있다.

특히 예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실천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마다 장애인을 치유한 기적의 사건과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초대 교회 확장 초기에 장애인을 치유한 기적의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함에 있어서 출발점은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역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 ‘약한 자’, ‘이웃’ 등의 표현에서 항상 가장 우선적인 위치에서 이해되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벧전 2:9)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다. 이 성도들의 공동체는 장애를 가진 성도들도 마땅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회는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머리로 하는 다양한 지체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고전 12:12)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한다. 교회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하시면서 병든 자와 장애인 복지선교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신 것과 같이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의와 희락과 평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5) 노동복지, 외국인 노동자/실직자 복지

10년 전 1997년에 우리나라는 IMF 상황을 혹독하게 경험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직장으로 알고 있던 회사로부터 강제 퇴출을 당하였으며 하루 아침에 실직자로 또는 노숙자로 전락되는 사람들이 많았다. 오늘날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썬브 프라임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파급되어서 아직도 불안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 어디까지가 끝이며 바닥인지를 전혀 자신 있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 어려움이 있다.

이 땅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지 십여 년이 지났고 이제는 결혼하는 이주여성들과 더불어 외국인이 100만 명이 넘게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들도 외국에 나가서 차별대우를 받아 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노동하며 사는 가난한 나라 출신의 사람들과 같은 한국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건너온 조선족 동포들을 같은 국민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태초에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창 1:27). 그러므로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서 존귀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해주신 이 땅과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누구나 신분, 직업, 인종, 계급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을 수 없다. 일자리가 없다거나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노숙한다는 이유로 행복추구의 권리를 빼앗길 수 없으며, 안전하게 삶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행복의 권리와 혜택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를 잃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피조물을 다스리며 일하도록 명령하셨으며(창 1:26, 2:5, 15), 또한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5:17)고 하셨다. 그러므로 노동은 인간의 삶의 본질이자 권리이며 의무이다.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각자에게 허락하시고 부르시는 이 땅에서의 소명과 책임을 성취할 수 있으며 보람과 자기실현을 이룰 수 있다. 노동을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직자들에게도 노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노숙자들도 노동할 수 있도록 육체적, 정신적 재활과 자활, 자립의 기회가 제공되어 자기실현과 사회적 재창조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출 22:21-23).

예수님께서서는 주의 영이 내리셨다고 선포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들에게 해방을 전하신다고 말씀하셨다(눅 4:18-19). 실직노숙자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결혼이주민 여성들도 다 가난한 사람들이며 사회적인 약자들로서 교회와 성도들이 섬기며 돌봐야 할 대상들이다.

구약성서에는 두 종류 외국인이 나타나고 있다. 노크리와 게르인

데 노크리는 이스라엘의 문화를 따르지 않는 이방종교의 사람들로서 이스라엘에서 거주하며 장사하는 외국인이었었는데 재물이 있고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대해졌다. 그러나 게르는 이스라엘의 역사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온 가난한 외국인들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화되어 그 사회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었다. 이들은 항상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계층으로 여겨졌으며 다른 사람들의 배려와 보호를 받았다. 십일조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신 14:28-29).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곧 게르였다. 우리들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게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게르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도와주어야 한다.

3. 나가는 말

복지선교와 연관된 대상들은 그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좁은 지면에서 다 다룰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들의 목회자체가 곧 섬김이며 교회의 본질이 곧 섬김이기 때문에 복지선교적 목회는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만 최우선적이며 열정을 다해 온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경건과 이웃 사랑의 섬김을 균형 있게 잘 이루어 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아코니아신학과 사회선교적 이해가 필요하며 이는 훈련과 의식을 먼저 가져야 가능하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 주고 섬기는 선한 목회가 복지선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❷